

가을 관광주간 '청정 완도'서 즐기세요

'청산도 향기' '가을빛 여행'
불거리·체험·먹거리 풍성
다채로운 가을축제 개최

완도군이 가을 관광주간(19일~11월11일)을 맞아 '청산도 가을의 향기'와 '청정 완도 가을빛 여행' 등 다채로운 가을 축제를 개최한다. 또 관광주간 기간 동안 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24일부터 31일까지 8일동안 열리는 '가을의 향기'축제에서는 슬로길 11코스를 걷는 대표 프로그램 청산완보와 국악공연, 슬로라이프 체험 등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거리 등이 제공된다.

관광해설사와 함께 청산진성을 탐방하고, 마을 주민들이 전통장례풍습인 '초분'을 재현해 청산 고유의 문화와 가치도 제곱할 예정이다. 특히 청정해역 청산도에서 자생하는 다



완도군 청산도 느림공원 야외무대에서 지난 24일 '가을의 향기' 축제 프로그램으로 '나비아 청산가자'를 주제로 한 국악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완도군 제공>

시마·미역 등 해조류를 활용한 다시마 쿠키·양갱, 미역칩 케이크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슬로우 라이프 식도락체험, 천연빛깔 조개로 목걸이·브로치 등 기념품을 만드는 조개공예체험, 청산 전통어보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튀리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운영된다.

청산도는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가을 테마섬 9선'에 이름을 올린 곳으로, 에메랄드 빛 바다와 활짝 핀 코

스모스가 어우러진 가을풍경이 일품이다.

완도군은 또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완도항과 완도수목원 일대에서 바다음식과 가을 숲의 향연을 주제로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을 운영한다. 이 기간 완도항과 수목원 일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바다음식 전시경연과 광어회 썰기 대회, 수산물 대박 경매 등 바다음식과 관련한 행사를 비롯한 난대림 숲길 걷기,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 숲 체험마당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분홍빛 코스모스 물결 속에 새로운 공연과 색다른 체험으로 가득한 푸름이 아름답고 느낌이 행복한 슬로시티 청산도의 가을에 흠뻑 빠져드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장보고기념관(30%), 완도타워(50%), 어촌민속전시관(50%), 느린섬 여행학교 슬로푸드체험관(10%) 등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한·중·일 중견작가 35명 교류전

진도 소전시미술관 내달 5일까지 '동방의 빛과 바람'展

진도군이 한국·중국·일본 중견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회를 마련했다.

진도군은 "지난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중·일 3국의 대표적인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동방의 빛과 바람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진도읍 소전시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한·중·일 중견작가 35명이 한자리에 모여 동양의 전통적인 미술 문화를 공유하고 서양미술과 공존할 수 있는 작품 35점이 전시중이다. 특히 동양화, 수묵화, 산수화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진도군은 한·중·일 중견작가의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예술의 분산인 '민속예술문화특구 진도군'의 위상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이 주최하고 진도예총 주관으로 열리는 한·중·일 중견작가 교류전에는 단채전 형식으로 중국 11명, 일본 9명, 한국 10명, 진도군 5명이 참가 중이다.

전시기간 동안 한·중·일 중견작가들은 소치미술대전 관람 및 도해도 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조도면 관매도를 방문해 스케치 활동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은 장기적으로 대만과 베트남 등 참여 나라의 기회를 확대해 국제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박희영기자 hspark@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들이 최근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해남 마산면 뜯섬 친환경 쌀 본격 수확

환경·농업 공존 생태섬
108ha 올 첫 경작
전량 학교급식 업체 납품

환경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농업 모델로 떠오른 해남군 마산면 '뜯섬'에서 친환경 벼 수확이 시작됐다.

영산호 한가운데 조성된 뜯섬은 전체 193ha 중 개답 공사가 끝난 108ha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일시경작을 실시했으며, 모두 친환경 벼 재배단지조 조성됐다.

103ha는 마산면 90여 농가에서 우렁이 농법 등을 통해 무농약쌀을 생산하고, 5ha는 해남군에서 직접 친환경 벼 시범포 운영을 통해 친환경 자체 병해충 효과 분석 및 적정 과중량 등 효과적인 친환경 재배를 위한 연구 단지로 활용중이다.

올해 작황은 10a당 수량이 일반재배의 90% 수준인 450kg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된 쌀은 전량 친환경 쌀 학교급식 업체로 납품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앞으로 뜯섬에서 수확된 쌀에 대해서는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해 해남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기로



해남군 마산면 뜯섬에서 농부들이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으로 재배한 벼를 수확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했다. 영산강 간척사업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담수호 한가운데 생겨난 뜯섬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 등 희귀조류와 겨울철새들의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뜯섬의 특성을 살려 전 지역을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자연 생태계 복원과 친환경 농업 확대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군은 농지 외 지역에는 습지 공원과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해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는 등 환경과 농업이 공생하는 성공 사례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뜯섬 전체를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조성하는 데는 환경과 농업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출산을 전국 1위 기념

해남군 '유모차 행진 음악회'

해남군이 출산을 전국 1위를 기념한 '유모차 행진 음악회'를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과 해남읍 시가지에서 '유모차 행진 음악회'가 열린다.

1부 음악회에서는 유치원 7세반 장기자랑, 해남동중등학교 합창단 축하공연, 해남강강술래 등이 선보인다. 인구 증가에 이바지한 다둥이상, 4세대 가족상, 세쌍둥이상, 다문화가족복합상 등도 준비돼 있다.

2부에서는 군악대를 필두로 유모차 부대, 유치원생, 주민이 함께 시가행진을 한다. 유모차를 끌고 참여하는 주민에게 푸짐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숙 출산정책담당은 22일 "군은 앞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년 연속 함께 출산을 전국 1위를 자지한 해남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2469명이 태어났다. 함께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한다. 해남은 전국에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2.1명)을 넘는 유일한 곳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187명에 1억4000만원 전달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26일 "최근 학업성적우수자 169명, 특기장학생 18명 등 지역 우수인재 187명에게 인재육성장학금 1억4000여만원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인재육성장학금은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500만원~1500만원이 지급됐다.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200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100여명에게 10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인재육성 장학금이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국민의 따님과 군 공직자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장학금"이라면서 "장학금을 받은 지역 인재들은 지역민의 고귀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학업에 충실해 지역 발전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희영기자 hspark@

해남군, 복지부 지역사회복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해남군은 26일 "보건복지부의 '2014년 지역사회복지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지역사회 복지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이번 평가에서 해남군은 일반복지사업 7개 분야 73개 사업과 중점추진 핵심사업 29개 사업 등 총 102개 사업 등을 통해 주민 복지 서비스를 높인 점이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군은 사회복지 주요 사업으로 전남지역 최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개관을 통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센터를 지난 1년간 구직 상담 1358건 및 취업 190건,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 125건을 처리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고민과 복지민원을 윈스 톨프로 해결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투데이 옥션

부동산판매 추천물건

- 1. 광주 서구 풍암동 대지 도로접 위치 좋음. 면적 182㎡
 감정가 1억 8천 최저가 1억 8천
- 2. 광주 북구 장등동 대지 전원주택 부지 추천. 면적 962㎡
 감정가 2억 최저가 2억

광주 북구 유동 상가건물 대로변 위치 아파트 재개발 지역인근 대지 796㎡ 건물 2704㎡ 지하 1층 ~ 지상 5층 감정가 24억 3천 최저가 17억

광주 서구 풍암동 다가구 주택 은리중학교 북서측 인근 위치 대지 353㎡ 건물 589㎡ 지상 3층 건물 감정가 6억 3천 최저가 4억 4천

광주 동구 계림동 4층 원룸동 1층 상가 홀플러스 남서측 인근에 위치 주택 상가 등으로 형성된 정비된 주택지대임 대지 297㎡ 건물 670㎡ 감정가 6억 6천 최저가 4억 6천

광주 남구 주월동 상업지역 대지 백운광장 인근 대로변접 건물 신축 부지 적합 대지 167㎡ 감정가 15억 5천 최저가 10억

경공매전문가 이현석
 010-9963-6345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 전문 기업입니다.

법원경매 낙찰대리,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윈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추천물건		
광주지방법원	2015타경 9057	근린시설
	2014타경 29078	숙박시설
	2014타경 30504	근린주택
	2014타경 30504	골프장
	2015타경2247	근린시설

* 광주지역 외 추천물건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NPL 질권대출 · NPL 매입, 매각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거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 전국최저금리!!! 전국최고 한도
- NPL 잔금 5.2% ~ 5.9% • 중도상환 無

경락잔금 대출, 경매취하 자금 대출 담당자 김기남 팀장 010-4444-7424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이수진이 사 010-2170-3034
 김태훈 본부장 010-4557-3034